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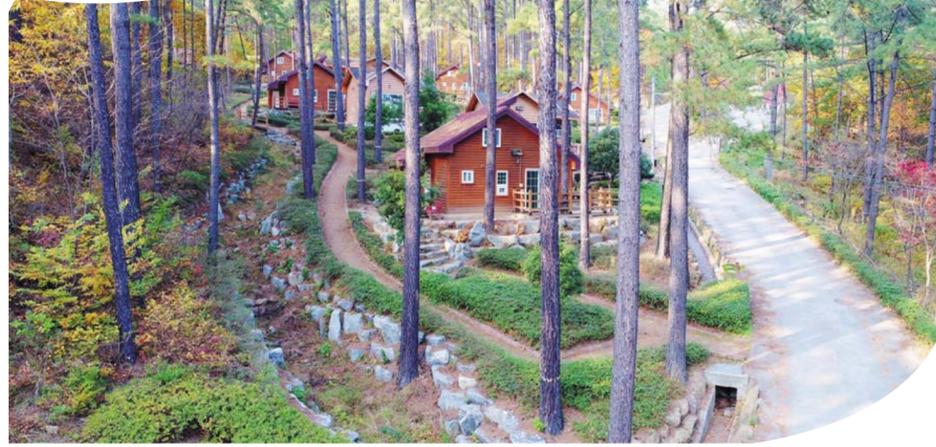
# 100만명 전남 산림휴양시설서 '힐링'

### 휴양림·치유의숲·명품숲길 등 36개 시설 인기몰이 광양 백운산 휴양림·보성 제암산 휴양림 등 각광

전남에 자리한 개성 있고 매력 넘치는 휴양림·치유의 숲·명품숲길 등 산림휴양시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7월 말까지 100만명이 전남지역 산림휴양시설을 찾아 자연 속에서 숲의 매력을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휴양림 15개소, 치유의 숲 8개소, 숲속야영장 1개소, 걷고 싶은 명품숲길 12개소 총 48km 구간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전국에서 휴양객 100만여명이 찾았다.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는 자연휴양림 중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치유의 숲과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습지 등 산림휴양시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은 질라인, 모험(어드벤처) 시설 등 다양한 산림레포츠 체험시설과 함께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다. 여수 봉황산·신안 다도해·완도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3곳은 전남의 아름다운 바다와 숲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이색적이다.



전남도내 휴양림·치유의 숲·명품숲길 등 산림휴양시설이 지난 7월 말까지 전국 휴양객 100만명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위부터 관람객들에게 호평받고 있는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 <전남도 제공>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는 자연휴양림 중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치유의 숲과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습지 등 산림휴양시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은 질라인, 모험(어드벤처) 시설 등 다양한 산림레포츠 체험시설과 함께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다. 여수 봉황산·신안 다도해·완도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3곳은 전남의 아름다운 바다와 숲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이색적이다.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을 바라하면 숲나들-e 시스템(www.forestrip.go.kr)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치유의숲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림으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찾고 싶

기, 명상과 체조, 아로마 오일 방향제 만들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 나뭇빛가람·화순 만연산·고흥 팔영산·땅끝해남 치유의숲 등에서도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해당 지자체 누리집이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하면서 주목받는 숲속야영장은 보성 윤제림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캠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50억원을 투입, 광양, 순천, 화순, 무안, 완도, 장성 등 지역에 숲속 야영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남에는 등산로, 둘레길 등 숲길 4천 442km가 조성돼 있는데, 전남의 역사문화 자원과 숲을 연계한 산림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 중 48km를 걷고 싶은 명품숲길로 지정했다. 지역별로는 진도 침철산 난대숲길, 해남 두륜산 장춘 천년숲길, 목포 고하도 해변숲길, 구례 천은사 수변숲길 등이 있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늘어나는 산림휴양객을 위해 산림서비스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일상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전남의 숲을 찾아 활력을 재충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중연길 전남 농수산물 '상설 판매장' 개장

### 고품질 식품으로 현지 소비자 공략

전남도는 최근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만달광장 쇼핑몰에 '전남 농수산물 품 상설 판매장' 중국 5호점을 개장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상설 판매장 운영은 현지 무역전문법인 상해건화은국제무역유한공사에 맡겼다. 현지 소비자와 한인 동포를 집중 공략해 연간 50만 달러 이상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판매 품목은 전남 특산품인 친환경 유자가공식품, 조미김, 매실청 등을 비롯해 오곡누룽지, 소주, 작두콩차, 쌀과자 등 도내 15개 기업 29개 제품이다.

개장식에는 이인걸 상해건화은국제무역유한공사 대표와 김영심 전남도 중국사무소 소장, 웬센후이 길림성 외관아

시아처장, 천추량주 길림성 외관부주임, 지역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들은 밭고 밭을 수 있는 한국산 농수산물품 전용판매장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상해건화은국제무역유한공사는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유아용 식품, 스낵류, 음료, 차, 전통주류, 수산가공품을 주로 수입해 상해 자유무역성 등 직판장 2개소와 현지 마트 등에 납품하는 연 매출 487만 달러의 중국 현지 유통 전문기업이다.

만달광장은 부동산, 호텔, 금융이 주 사업인 중국 10대 재벌그룹 만달그룹이 전국 254개 지역에 개설한 대규모 종합 쇼핑몰 브랜드다.

/김재정기자

## 장록국가습지 생물다양성 대탐사

### 시, 10-11일 초·중학생 100명 대상 진행

광주 도심 속 첫 국가습지인 장록습지에서 10일부터 이틀간 '제2회 2022 장록국가습지 생물다양성 대탐사'가 열린다.

생물다양성 탐사는 학생 참가자들이 생태 전문가와 함께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을 찾아 기록하는 생태 체험학습 참여활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탐사는 장록습지에 다양한 생명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 전문가 30명과 초·중학생 참가자 100명을 모집해 7개 분류군 별(식물·곤충·조류·어류·양서·파충·포유류 등)로 팀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인 10일에는 맑은 빛을 쫓아오는 곤충들을 채집하기 위해 야간 곤충 탐사를 진행하고, 11일에는 7개 분류군 별로

전문가와 학생 참가자들이 장록국가습지 일대를 탐사하며 생물종 목록 및 생태 지도를 작성한다.

탐사활동 이후에는 전문가와 참가자들이 함께 생물다양성 이야기마당과 생물종 목록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탐사 활동 중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거리두기를 위해 각 탐사 분류군 별 10명 안팎으로 활동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생물다양성>광주전남협회 홈페이지 및 전화(062-223-3279)로 확인할 수 있다.

조사된 생물종 목록은 장록습지의 생물종 보호·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후속 조치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박선강기자

## 광주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광주시는 8일 "질병관리청, 조선대학교와 협력해 오는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4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주민의 건강수준에 대한 지역 통계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조사로 질병관리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2008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 항목은 ▲기분 가구조사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예방접종 ▲코로나19 관련 등 총 19개 영역 138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해 태블릿 컴퓨터(PC)에 탑재된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박선강기자

## 전남도, 배달음식 위생안전 강화

### 12일까지 분식류 조리 판매 음식점 합동점검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8일부터 12일까지 22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136개소에 대해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앞서 1분기에는 중화요리, 2분기에는 족발·보쌈 등 업종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원료 등 보관기

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배달함 위생관리 상태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다.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한 음식(김밥)을 수거, 식중독균 검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2분기까지 배달음식점 575개소를 점검했으며 이 중 영업장 내 음식물 쓰레기 관리 미흡 등 시설 기준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 처분을 했다.

또한 기온이 오르는 여름철에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달음식점 점검 시 영업자와 종사자에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과 함께 ▲원재료·조리기구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달걀 지단 등 원재료 보관 온도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냉장 5℃ 이하, 보온 60℃ 이상)다.

김병성 식품의약품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음식 수요가 늘고 있어 배달음식점 위생 상태를 점검 점검해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할 계획"이라며 "여름철 식품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 광주소방, 추석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 2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특별조사

광주소방안전본부는 8일 "추석 명절을 대비해 시민들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6일까지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터미널,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해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실태, 피난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량사항이 있는 대상은 명절 전까지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통시장 24개소에 대해서는

화재취약 시간대 상인들과 의용소방대가 협력해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협의회를 개최해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예방 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또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같은 주거취약시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방시설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보일러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산업시설에 대해서도 화기취급 주의사항과 소방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을 안내하는 서한문을 추석 명절 전에 발송해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박선강기자

#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음주운전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